

‘빛의 화가’의 또 다른 빛을 만나는 시간

‘빛의 화가’ 우제길 화백이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에서 오는 8월 2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지난해 수상한 제18회 문신미술상 초대전이다. 경남 창원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1923~1995)의 업적과 예술혼을 기리는 문신미술상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예술인을 격려하는 상이다.

전시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 22일에는 창원시 주최로 ‘문신 탄생 100주년(2022년) 기념사업 선포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초대전이 열린 곳은 파리에 20여년간 활동한 후 귀국한 문신에게 기증한 미술관이다

‘빛을 그리다, 꿈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우 화백은 올해 집중적으로 작업한 ‘4월의 빛’ 시리즈를 비롯해 대작 위주의 작품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빛’을 주제로 한 그의 추상화 작업은 일관된 주제와 함께 다양한 변주가 특징이다. 모노톤의 화면에 색조를 부여하고, 이어 다양한 컬러들이 울동감을 이루며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형태 역시 화면에 길고 좁은 틈을 뚫고 빛을 표현하던 초기작부터 점묘형 구조 등으로 변화했으며 대체로 온 컬러를 입힌 띠지를 반복해 사용해 만들어낸 화면은 꿈을 거리는 생명력을 전한다.

우제길 화백 문신미술상 수상 초대전

‘빛을 그리다, 꿈을 그리다’ 주제

8월 2일까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최근 몇년간의 작업이 알록달록한 색을 입힌 종이 테이프를 수없이 풀라주며 화면 전체를 화려한 색감으로 꽉 채웠던 데 반해 굴곡의 현대사를 모티브로 삼은 ‘4월의 빛’ 시리즈는 깊고 아득한 검은 바탕에 섬광처럼 번쩍이는 다양한 색상의 빛의 문양을 배치, 강렬한 인상을 준다. 화면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며 떨어지는 빛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처럼 느껴진다. 작가는 올해 4·19 60주년을 맞아 4·19민주혁명기념관에 ‘4월의 빛’ 연작을 기증하기도 했다.

“나만의 걸음으로 나만의 길을 간다”는 좌우명을 품고 살아간다는 우화백의 작업은 끝없이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지를 사용해서 빛을 찾고, 산자락에 버려진 낡은 판넬 조각에 빛을 구현하고, 청각적 이미지를 빛으로 시각화시킨다. 다양한 색감을 엮은 수많은 띠가 포개지고, 얇고 섬기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리듬감과 울동감을 부여하며 작가만의 독특한 조형성을 구현한다.



‘4월의 빛-A’

고토 출신으로 줄곧 광주에서 살아온 우 화백은 광주사범대학을 거쳐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와 전남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립현대 미술관 ‘이달의 작가전’을 비롯 일본·독일·프랑스 등에서 97회 개인전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에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동안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개인초대전을 열었으며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제1회 광주비엔날레 최고 인기 작가상, 육과 문화훈장(2004) 등을 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전문인력아카데미’

29일까지 수강생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오는 29일까지 ‘ACC 전문인력아카데미-정규과정 특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문 직군별로 이론과 실무를 중점 교육하는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문화콘텐츠기획자 과정을 비롯해 융복합 문화기획자 등 5개 직군별로 나눠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수료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뒤 문화예술 콘텐츠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매개로 직접 실행하는 ‘랩(스타트업, 프로젝트랩) 과정’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예술현장 실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과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교육은 ‘융복합문화기획자-다매체적 전시기획’ (7월 14일-8월 26일), ‘디지털아카이브-트-디지털 문화유산 이해 활용’ (7월 14일-8월 26일), ‘어린이문화콘텐츠기획자-전시·공연·축제 기획실무’ (7월 16일-8월 28일), ‘전시테크닉-미디어 공간 구현’ (7월 16일-8월 28일), ‘사운드엔지니어-공연장 음향 이론·실습’ (7월 17일-8월 29일)이다.

서류 제출은 오는 29일까지이며 ACC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각 분야별 20여 명을 선발하며 교육비는 과정별 15만원이다.

문의 062-601-475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이친구(1279)센터와 돌봄같이’

광주여성가족재단 발간 배부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임신·출산·육아·돌봄과 관련한 광주시의 정책, 시설운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영유아·아동 돌봄에 관련된 책자 1000부를 발간해 배부했다.



책자 제목은 ‘아이친구(1279)센터와 돌봄같이’로 아이돌봄에 대한 고충을 함께 나누고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다.

책자에는 ▲아동양육기관·사이트 ▲돌봄서비스 기관 ▲체험·놀이시설 ▲상담기관 ▲각종 돌봄관련정보제공사이트 등 돌봄관련 기관 및 정책·서비스 지원 정보를 실었다.

책자는 재단에서 자체 제작한 ‘코로나19 안심돌봄박스’에 동봉해 시민들에게 제공했으며, 광주지역에 3~7세 자녀를 둔 아빠들로 이루어진 ‘100인의 아빠단’에게도 전달했다.

책자는 재단에 방문해 받을 수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임신·출산·육아·돌봄 관련 다양한 정책과 시설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정보 플랫폼 아이친구(1279)센터 온·오프라인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정신, 대동세상’ 세계에 알린다

해외 50개 도시에 만장 전달... 27~29일 5·18묘지서 ‘예술 만장전’

망자를 애도하며 지은 글을 깃발처럼 만든 것을 만장(輓章)이라 한다. 해마다 5월이면 광주에는 5월 정신을 상징하는 만장이 걸린다. 광주정신과 대동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날의 뜻과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다.

올해는 이 같은 만장이 미국의 뉴욕, 워싱턴, LA를 비롯한 해외 50개 지역의 5·18 행사위로 보내져 ‘광주정신, 대동세상’의 아름다움이 세계 시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참여한 작가들이 제작한 만장이 세계 주요 도시에 보내짐으로써 오월 정신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민예총)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만장전 ‘예술 만장전-5월의 미풍’을 개최한다. 이번 만장전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월 정신을 승리의 역사, 따뜻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기획했으며 전국 각지 작가 51인이 참여한다.

민예총은 이번 만장전 이후 작품들을 해외 50개 지역 5·18 행사위로 보낼 계획이다. 미국의 주요 도시 외에도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브라질 상파울로, 일본, 호주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의 노여운·박성완·임남진·조정태·최재덕·허달용을 비롯해 구례의 박나리·오지근 작가, 해남의 김우성 작가가 참여한다. 또한 전북의 진창운, 서울의 고경일·김서경·김운성·김종도·김호만·이하 등 전국 작가 51인이 포함돼 있다.

개막 당일 27일 오후 2시에는 민주묘지 입구에서 ‘예술 만장전-5월의 미풍’ 문화제가 펼쳐진다. 박종화 광주 민예총 이사장의 환영사와 이경산 한국민예총 이사장의 축사, 세대를 노래하는 삼촌밴드, 민중가수 류의남 공연, 예술만장 관람 투어가 이어진다.

아울러 전국 농민들의 트럭 518대가 전두환 표정을 풍자한 518개 대형 초상을 싣고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퍼레이드는 광주민예총을 비롯한 전국



16개 민족예술단체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두환·노태우가 항복한 날에 발표된 6·29선언에 맞춰 진행하자는 의미를 담아 27일에 펼쳐진다.

행렬의 맨 선두에는 전두환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탑재 높이 1.2m 포함 4.2m, 길이 7m)을 싣은 트럭이 서고, 차례로 518대의 트럭이 뒤

따른다. 518점 그림은 전국에서 모인 전문작가와 시민, 청소년 참여작가 총 398명이 전두환의 뺨뺨스러운 표정을 다양하게 그린 것이다. 퍼레이드가 끝나면 5·18민주광장에서 5·18제40주년 문화예술추진위가 마련한 ‘저항의 밤’ 문화제가 오후 7시부터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마흔살 오월’

비상무용단 초연 ‘프리퀼’ 27~2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흔 살의 오월은 어떤 모습일까. 이 물음에 대해 40살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상주단체 비상무용단(대표 박종임 송원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이 창작 초연 ‘프리퀼(Prequel)’을 무대에 올린다. 27~ 28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이 작품은 5·18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새로운 형태로 해석하고, 관객들로 하여

금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현대무용과 미디어아트 융합을 통해 공연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관객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연으로 기획됐다.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가장에게 프리퀼이란 자신이 태어났던 해, 아무것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해 오월의 잔혹한 역사와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다.

미디어아티스트 임용현의 미디어아트가 융합된 ‘프리퀼(Prequel)’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난관과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비상무용단의 ‘프리퀼(Prequel)’이 27~ 28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있는 진실과 사실에 대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무대로 선보인다.

한편, 지난 2007년 창단한 비상무용단은 ‘관객

이 공감하는 공연’을 모토로 문화 재능기부, 사회공헌 교육 등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무료관람. 문의 062-230-742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